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첫번째 법회인 제26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송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첫째날
1월 16일
입재 법문
도법스님
남원 실상사 회주

● 3일차
1월 18일
특별 법문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 회주

● 9일차
1월 24일
특별 법문
동봉스님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 13일차
1월 28일
특별 법문
성담스님
충남 효심사 주지

◆ 일시 : 2014년 **1**월 **16**일 ~ **4**월 **25**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1월 16일 (목)	도법스님	전북 남원 실상사 회주	8일차	1월 23일 (목)	관일스님	서울 보현사 법사
2일차	1월 17일 (금)	가산스님	충북 원융사 조실	9일차	1월 24일 (금)	동봉스님	경기도 광주 우리절 주지
3일차	1월 18일 (토)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 회주	10일차	1월 25일 (토)	일우스님	대구 성관음사 주지
4일차	1월 19일 (일)	철운스님	법주사 강주	11일차	1월 26일 (일)	혜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5일차	1월 20일 (월)	종연스님	인천 수미정사 주지	12일차	1월 27일 (월)	성범스님	대전 구봉선 원장
6일차	1월 21일 (화)	영산스님	경남 진주 해룡사 주지	13일차	1월 28일 (화)	성담스님	충남 효심사 주지
7일차	1월 22일 (수)	광명스님	서울 비로선원 주지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4일(일)
회향 : 2014년 12월 22일(월)

대한불교 조계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1 | Vol. 236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 왕 사**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화엄신중 천일기도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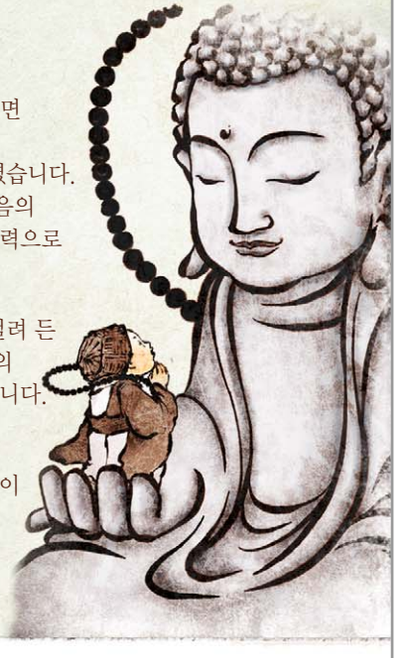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오는 2014년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월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께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천일의 발원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塵)이니라.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와 같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자경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몸 낮추는 계절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이 경을 믿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면
초발심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불국토의 바다에
편히 앉게 되나니 이를 일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하셨습니다.
걸음, 걸음들이 더디기만 하여 급한 마음 밭에 어리석음의
씨앗을 심지 않도록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기를 발원합니다.



탐욕심이 지은 업으로 뒤틀려 어긋나 악연의 고리에 걸려 든
인연들이 자재하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으로 어긋남의
고리를 끊고 선한 인연되어 화락하게 하옵기를 발원합니다.

여기, 법왕사 불자님들이 천일의 念을 세웠습니다.
신심깊은 불자님들의 한마음 한마음이 모여 천일의 念이
완성되는 날 소구소원하신 모든 발원이 성취되어
너도 관세음, 나도 관세음,
우리 모두 관세음 되게 하여 지이다.

천일기도 안내

- **입　　재** :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음 12월 15일)
- **회　　향** :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음 9월 10일)
- **천일법회** : 매월 보름 오후 2시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
- **천일염주** : 천일법회 시 천주를 제작할 30알의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드립니다.
- **기 도 비** : 입재시 10만원, 매월 초하루 3만원(30개월)

※ 1000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님께는 1000일기도 회향 기념 수계를 드립니다.
※ 입재시 100알의 염주와 1000주 염주를 만들 염주 줄을 드립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밝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4
1
Vol. 236호

04 깨침의 향기
참마음 찾으려면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 원공당 정무 대종사

08 신년사 I
새해 아침에 생각하는 참된 불자로서의 삶 · 심경스님

10 신년사 II
부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갑오년이 되시길 · 주호영

12 신년사 III
갑오년, 법왕사의 새로운 서원들 · 실상스님

14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내면의 잡초 없애야 정견의 싹이 움튼다 · 본원스님

18 불교상징의 세계
화사석에 따른 석등의 양식 · 조명래

22 특별기고 | 팔공산 천왕봉
팔공산 제천단은 '천왕봉(天王峰)' · 조명래

26 특집 | 화보
제25회 백고좌법회 회향, 해오름요양원 후원의 밤

28 법왕사소식

30 법왕사게시판

32 해오름소식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수성 라 00017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58(서기 2014)년 1월 01일 발행 | **통권**_236호 | **종무소**_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묘도, 영일, 성해, 정명, 상촬, 자윤, 대일, 강선옥, 대혜궁, 묘향심, 반야화 | **기획 · 제작 · 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참마음 찾으려면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라

원공당 **정무** 대종사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고,
수행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은
바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참마음을 찾아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망(迷妄)에 가려져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에게 불성이 잠재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불성(佛性)을 통찰하기만 하면 곧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중생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불교 공부입니다.
우리의 참마음은 본래 진실한데 이 진실한 참마음을 번뇌망상(煩惱妄想) 속에 가두고 있는 사람은 범부중생이고, 번뇌망상의 답답한 감옥을 활짝 열고 나오는 사람은 곧 성인(聖人)이요, 부처인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불성의 존재입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그 불성을 잊고 살 따름입니다.

경(經)에 이르기를, "저 중생들이 요술 같은 몸이 없어지므로 요술 같은 마음이 또한 없어지며, 환심이 없어지므로 요술 같은 경계가 또한 없어지며, 환진이 없어지므로 요술이 없어졌다는 마음 또한 없어지며, 요술 없어진 것도 또한 없어지므로 요술 아닌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치 거울을 닦아서 때가 다하면 밝음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말하고, 수행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은 바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참마음을 찾아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참마음을 찾으려면 무심법(無心法)으로 번뇌망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

이 마음이 없다면 초목과 같고 죽은 것이나 진배가 없는데 어떻게 무심(無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심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빈 병은 '병 속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 병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겪게 된다는 팔고(八苦) 중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때문에 무릇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고, 번뇌망상과 함께 잊어버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조 혜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의발교법(衣鉢敎法)을 전해 받은 것을 안 대중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혜능대사를 찾아 나섰는데, 그중에 무장 출신으로 몸이 날랜 혜명이란 스님이 대유령이란 큰 고개에서 혜능대사를 따라잡고는 의발을 내놓으라고 하자, 대사가 의발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그대가 힘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혜명스님이 바위 위에 있는 의발을 집었으나 온힘을 다해도 꿈쩍하지 않자, 잘못을 깨닫고 말하기를 "의발을 탐내 좇아온 것이 아니라 불법을 구하고자 함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자, 혜능대사는 바위 위에 올라 단정하게 앉아서 이르기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不思善不思惡)"고 하니, 혜명스님이 그 말을 듣고 홀연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혜능대사께서 말씀하신 불사선불사악(不思善不思惡)은 "깨달았다는 생각조차 갖지 말고, 번뇌망상과 함께 잊어버려라"는 옛 스님들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일어나거든 곧 쉬어 버리며, 인연을 만나면 곧 쉬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번뇌망상에서 참마음을 찾는 공부인 것입니다.

참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객관 경계를 비우고 주관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이 이르기를, "온갖 사물의 반려가 되지 말며 모든 경계를 상대로 하지 말라. 만일 경계에 집착하면 마음이 곧 망념이다. 이제 이미 경계가 없으면 무슨 망념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선근(善根)의 인연을 맺어
참마음을 찾는 공부에
매진하려면
육조 혜능대사의
말씀처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을 별천지에 사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도인들도 우리네 중생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배 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이 어디 우리 중생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대신 세상의 경계에 끌리지 않다보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고,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모래 속에서 사금(砂金)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속을 헤쳐 사금을 찾아내지만 모래가 없는 사금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번뇌망상이 없는 깨달음이란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가선사는 "무명실성(無明實性)이 즉불성(卽佛性)이요, 환신공신(幻身空身)이 즉법신(卽法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의 성품이 바로 불성(佛性)이요, 허깨비 같은 이 몸이 곧 법신(法身)이라는 뜻입니다.

이 몸 그대로가 성인이요, 부처이지만 세상의 번뇌망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내 몸뚱어리의 참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리행경에서 부처님이 이르시길, "번뇌의 근원은 대상에도 있지 않고 감관에도 있지 않고 그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어떤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교란하는가. 그것은 하나의 허깨비이다. 그럼으로 두려워함을 버리고 반야지를 위하여 용맹스럽게 정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근(善根)의 인연을 맺어 참마음을 찾는 공부에 매진하려면 육조 혜능대사의 말씀처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 아침에 생각하는 참된 불자로서의 삶

심경스님
중심문도회 회주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가피가 한량없이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여러분들께서 참된 불자로서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에 홀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중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닌, 결국 하나인 존재입니다. 진리 그 당체인 부처는 본래 번뇌에 불과했던 중생이 화생한 것이지, 따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의 이치가 부처라 하여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부처는 또 다시 사바세계에 나시어 중생의 몸이 되어 설법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실하라'

사바세계에 오신 부처님께서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우리 중생에게 설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순간도 거짓이 없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집착 대신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생사에 속박되지 않고 유연하게 삶을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실한 사람은 특별히 설법을 듣고 따로 깨닫지 않았어도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해지기 위해 깨닫는 것이지, 깨닫기 위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만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진실은 사람에게 참된 용기와 희망과 신념을 줍니다. 스스로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도 진실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는 것과 같은 당연한 원리고 이치입니다. 일거수 일투족의 행위에 스스로 거짓이 없다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진실하면 두려울 것 없어

삶은 진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미물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 진실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실하다면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존재며, 부처이며, 대자유인이며,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단지 스스로 아상을 가지고, 중생심을 가지고, 인상이나 수자상을 가지고 스스로 만든 번뇌에 둘러싸여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것은 허상에 불과한 탐진치에 물들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고귀한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중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스스로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고, 헛된 상에 사로잡혀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삼독심을 걷어내고 온갖 상에서 벗어나 내 안의 참된 불성을 찾으면 그 순간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바로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앞서 모범을 보이실 뿐이지 우리를 삼독심에서 건져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깨달아 성불에 이르는 이른바 자력종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고 정진 수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다시 있겠습니까. 모쪼록 큰 정진있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갑오년이 되시길

주호영
국회의원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가없는 법력으로 부처님의 뜻을 전하시는 법왕사 실상스님과 법왕사 신도님들의 가정에 무량복덕(無量福德)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불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깨달음을 얻고자 함입니다. 깨달음은 행복이요, 행복이 가득한 그 세상이 바로 극락(極樂)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즉 생로병사(生老病死)에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 등 팔고(八苦)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이런 내면적인 고통을 잘 이겨왔고 또한 앞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내면적인 고통보다는 사회적인 불안, 정치적인 혼돈 등 외면적인 고통입니다. 더구나 갈수록 정신의 소중함보다는 물질의 풍요에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젖은 사람들은 청빈낙도(淸貧樂道)의 삶보다는 오직 돈만이 행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은 더욱 황폐화되고 그 만큼 세상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보통이고, 부(富)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검은 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에 빠져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실망시키며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준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실망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한 면에 우울한 잿빛 기사가 판쳐도 또 다른 면에는 훈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人間事)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단지 밝음이 어두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 착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갈등, 고통과 번뇌에 쉽게 휩싸일 정도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등 문화적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기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가진 것을 쪼개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조금 빈약하다고 해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감동을 주는 이런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밝고 희망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극락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른다면 행복도 극락도 없습니다. 어떤 금은보화(金銀寶貨)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물질에서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깨달음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 그런 사회가 바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우리가 찾는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우리 법왕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불사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법왕사 신도 여러분의 가내에도 일년 내내 부처님의 지혜(智慧)와 자비(慈悲)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갑오년, 법왕사의 새로운 서원들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2014년, 불기 2558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머금은 듯한 붉은 태양이 새해 첫날 새벽에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불자로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자로서의 삶은 또한 무엇일까요? 불자로서의 삶을 말한다면 한 마디로 '깨달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계의 대도사로 모시고 그 분이 걸어가신 깨달음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서 그분처럼 깨달음에 이르기를 서원하는 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생로병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고 마는 순환 고리, 그 고리가 우리의 무명에 의해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근본문제가 우리의 무명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무명에서 비롯되는 무한한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고 중도의 칼로써 무명의 질긴 고리를 끊어버리고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삶도 바로 이 생사 윤회의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번 생에서 이룩해야 할 일대 근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해 동안 우리 법왕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참 부지런히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 백고좌법회를 무난하게 회향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200일 동안 법회를 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님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무리 해를 거듭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의 고승대덕 가운데 법왕사 법석에 모실 분들을 물색하고 법문을 청하고 마침내 승낙을 받기까지 여러 차례 간청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 법회의 취지나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스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한 차례에 1백분의 스님들을 모시는 것, 그런 법회를 두 차례 봉행하는 것은 여간한 원력으로는 해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게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추우나 더우나 꾸준히 법석을 채워주시는 불심 깊은 법왕사 불자님들, 불원천리하고 법석에 오르시는 스님들을 뵈면 제가 왜 부처님의 도량을 가꾸고 더 큰 법석을 마련해야 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면서 힘이 솟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올해에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백고좌법회를 연간 3회, 연속해서 봉행하려고 합니다. 연간 300일이면 명절이나 휴가, 초하루, 보름 등 정기법회 날짜를 제외하면 연중무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생사의 문제, 윤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가피를 입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전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본분입니다.

또 한 가지 서원은 법왕사가 궁극적인 불사로 추진하고 있는 불교복지를 완성하기 위해 시작한 해오름요양원을 더욱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제2해오름요양원 대작불사를 회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부지를 마련하였고 조만간 설계와 착공을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말의 해 갑오년, 힘찬 말의 기운을 본받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기운찬 한 해를 살아야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무량하기를 기원합니다.

내면의 잡초 없애야 정견의 싹이 움튼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동물은 제 습성에 따라 행동한다.
악어는 강물 속으로 달려가고, 원숭이는 나무 위로,
여우는 굴속으로, 매는 하늘로 높이 날아간다.
육근의 작용도 이와 같아서 능히 다스리지 않으면
마른 풀이 들판을 태워 버리듯이, 그 화는 마침내
스스로를 태우게 될 것이다." 〈상응부〉

육근(六根 · 六器官)은 우리 몸의 여섯 가지 신체기관을 말한다. 이것이 번뇌의 근본이며 뿌리인 까닭은 눈과 귀, 코, 혀, 몸, 그리고 뜻으로 저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느끼며, 아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눈은 대상인 사물을 봄으로써 안식(眼識)을 일으키고, 귀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이식(耳識)을 일으킨다. 코는 냄새를 맡음으로써 비식(鼻識)을 일으키고, 혀는 맛을 봄으로써 설식(舌識)을 일으킨다. 몸은 느낌의 감촉으로써 신식(身識)을 일으키고, 뜻은 다시 이것을 망상(妄想)과 망념(妄念)으로 의식(意識)하며 분별한다.

복잡다난한 우리 정신 구조체계가 지닌 심신(心身)작용으로 '백팔번뇌 산출방식' 이기도 한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표와 같다.

눈은 빛깔의 색을 맹목적으로 좇아 분별, 인식하며 느끼는 마음 상태를 좋다, 싫다, 덤덤하다, 괴롭다, 즐겁다, 버린다 등의 감정으로 나타내고, 귀는 소리를 좇아서 좋다, 싫다, 덤덤하다, 괴롭다, 즐겁다, 버린다 등의 감정으로 나타낸다. 또 코는 냄새를 좇아서

6근(六根)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
↓ ↓ ↓ ↓ ↓ ↓
6경(六境)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
↓ ↓ ↓ ↓ ↓ ↓
6식(六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좋다 · 싫다 · 평등 · 괴로움 · 낙 · 버림
[好] [惡] [平] [苦] [樂] [捨]

6 × 6 = 36識
× 3(과거 · 현재 · 미래)
108번뇌

이와 마찬가지로 좋다, 싫다, 덤덤하다, ……, 등의 감정으로 나타내고 입은 맛을 좇아서 좋다, 싫다, 덤덤하다, ……, 등의 감정으로, 몸은 감각을 좇아서 좋다, 싫다, 덤덤하다, ……, 등의 감정으로 나타내고, 뜻은 여섯 가지로 지어진 분별, 인식을 좇아서 판단, 선택하여 취하고 버린다.

본능만 좇으면 결국 화만 좌초

근본불교의 남방(南方) 상좌부(上座部) 계통에서 전해오는 〈상응부(相應部)〉 경전에는 이를 두고 아주 적절하고 실감나는 비유를 들어 묘사했다.

"가령 여기에 악어, 원숭이, 여우, 너구리, 두더쥐, 매 등 각기 습성을 달리하는 여섯 마리의 동물을 하나의 밧줄에 매어 둔다면, 악어는 제 습성에 따라 강물 속으로 달아나려고 할 것이고, 원숭이는 익힌 습성에 따라 나무 위로 달아나려고 바둥거릴 것이며, 여우는 굴속으로 달아나려고 할 것이고, 너구리는 들판으로 달아나려고 할 것이며, 두더쥐는 땅을 파헤치며 달아나려고 할 것이고, 매는 하늘 높이 날아 달아나려고 할 것이다. 그렇듯이 감각적 쾌락과 욕망을 좇아 부침(浮沈)하고 제어되지 않아 여기저기 마구 쏘다니며 헤매는 육근(六根)의 작용도 이와 같아서 능히 다스리지 않으면 마른 풀이 들판을 태워 버리듯이, 그 화는 마침내 스스로를 태우게 될 것이다."

인간은 사유의 동물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보고 들으며 야기된 번뇌뿐만 아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아득한 과거적 아픔, 상처, 고통, 슬픔 등을 기억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떠올리며 번뇌를 할 뿐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일들을 두고 미리 걱정, 불안, 염려하는 등 자나깨나 오나가나 근심, 걱정, 두려움과 들 뜬 번뇌로 한시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다.

여섯 가지 기관(器官)에 각기 저마다 대하는 여섯 가지 경계(境界)인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감촉과 판단은 대뇌의 인식을 훔치기에 이를 티끌 번뇌, 또는 도적이라고 하여 육진(六塵), 육적(六賊)이라 하기도 한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단박에 좇아가 객관 대상에 끄달리는 무명 중생의 이 같은 미망(迷妄)은 다만 분별지(分別智)로써, 이는 사물의 본질을 400분의 1 내지 800분의 1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과학으로도 규명되고 진리의 영역에서 보는 관점임에도 탐 · 진 · 치로 말미암은 인식의 오류와 착각

이 빚은 소견은 어리석게도 병적인 집착을 하게 하곤 한다.

이런 까닭에 살면서 누구나 자주자주 일삼아 살펴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자기 마음이다. 잠시라도 홀로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자기 마음을 지켜보라.

잠시도 쉬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

마음은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이 일 아니면 저 일, 저 일 아니면 이 일로 단 한 순간도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마음은 마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고달픈 날품팔이와도 같이 그날 그날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에 부친다. 차라리 날품팔이는 비오는 날 좀 쉬기도 하지만 극심한 정신노역에 시달리는 우리 마음은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마음은 흡사 바람도 없이 저절로 타는 심지로 인해 가물거리는 촛불 같고, 한시도 그냥 있지 않고 분망히 설치는 원숭이와 같으며, 길들여지지 않은 채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마구 날뛰며 들쑤시고 헤매면서 쏘다니는, 전혀 다스려지지 않은 거친 상태 그대로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다.

한 순간도 쉬지 못하고 혼란으로 요동치는 분망하고 산란하며 어지러운 마음임을 알고자 하면 자신에게든, 일 없이 한가로이 곁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고. 그러면 필시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 고. 하지만 이 말과는 다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마음이 아닌' 묻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쉬질 못하고 동분서주 종횡으로 치달으며 헐떡이고 나대는 것이 마음이다.

이처럼 마음은 잠시가 아니라, 단 일 찰나간도 쉬지 못하고 헐떡이며 불안하고, 어디 한 곳에 둘 데 없이 불편하며 스치는 바람결에도 살랑거리는 가랑잎처럼 마냥 흔들리고 덧없이 흩어져버린다. 믿지 못할 것이 부질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마음일진대, 어리석음에 덮인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자기 마음을 두고 견고하다고 믿어, 참마음을 찾고 실다운 바른 법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어떻게 이토록 부실하고 부자연스러우며 미혹(迷惑)하기 이를 데 없는 불편부당한 온전치 못한 병든 마음, 객관에 마구 끄달리는 마음, 질펀한 욕락에 젖어 편리함이나 즐기며 메마른 지식 · 정보에 빠져 다분히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태의 마음 속에, 법의 실상에서 사물을 바르게 보고 아는 바른 견해의 정견(正見)이 자리할 수 있겠는가.

'닦지 않은 채 방치한 거친 마음은 황무지가 돼버린 잡초밭과 같아서 내면(內面)에 뿌리내린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정견의 싹이 움틀 수 없음' 은 자명한 일로써 정견을 벗어난 그릇된 견해로서는, 하늘 위로 오르나 이 땅에 있어서나 불안과 불만족, 불편으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무지보다 그릇된 앎이 더 나빠

중생의 삶이 종속적인 것은, 종자(씨족) 번식이나 하고 오욕낙(제물욕 · 성욕 · 식욕 · 명예욕 · 수면욕)을 좇아, 보면 보는 대로 들리면 듣는 대로, 형상과 소리에 끄달리며 부침(浮沈)하는 인식의 오류와 착각이 가지는 알 수 없도록 깊게 패인 미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것이다. 이는 꼭 달작지근한 꿀맛에 취해버린 개미가 저도 모르게 점점 꿀속에 묻혀들어 허우적거리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비유된다.

법의 실상에서, 사물을 바르게 보고 알며 올바른 실천행을 가르치는 정견을 흐리고 장애하는 것은, 단순히 알지 못하는 무지(無知)보다 오히려 그릇된 앎(허상)의 고정관념이 지배하는 잘못의 인식(지식) 때문이다. 따라서 책과 학문에 의지하여 배워 익혀 앎을 더하는 메마른 지식 · 정보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본래 자기를 찾기 위한 사색의 깊고 순수한 통찰의 지혜로 심화시키지 않으면 한낱 사량(思量) 분별심이나 키우는 '앎' 이란 또 다른 번뇌의 조장"일 뿐이다. 그러므로 배워 듣고 아는 앎의 지식이 홀로 선 나무이고 개체며 헤아리는 분별지(分別智)라면 '정견' 이 내포하고 지향하는 지혜는, 수목이 우거진 숲이며, 개체가 아닌 전체를 내다보고 아우르는 일체지(一切智)다.

그윽한 산길을 따라 걷는 고풍스런 옛 절에 가면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풍상을 견뎌온 해묵은 일주문(一柱門)이 나오고, 일주문을 들어서면서 그곳부터 사찰 경내임을 뜻하는 불이문(不二門)[1]이 나온다. 무슨 이유에서 절에 왔건 도량(道場, 절)에 들어서는 사람을 말없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이문의 현판이다.

'이차문래 막존지해(以此門來 莫存知解)' 이 도량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는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1) 상대차별을 없애고, 절대차별 없는 이치를 나타내는 법을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하며 제법불이(諸法不二)의 이치는 불도를 닦는 표준이 되므로 법이라고 하고, 모든 성인이 이 법에 의하여 진리에 들어갔으므로 문이라 하며 불이문은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뜻함.

화사석에 따른 석등의 양식

▲ 보물 제17호 부석사 석등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석등(石燈)은 화사석의 모양에 따라 그 양식을 전형양식, 과도양식, 발전양식 또는 방형양식 등으로 구분한다.

불국사 대웅전 앞의 석등과 같이 화사석이 8각 평면을 하고 있는 양식을 전형양식이라 하고 계성사지 석등과 같이 화사석이 6각형을 하고 있는 양식을 과도양식이라 한다.

또 현화사지 석등과 같이 화사석이 4각형을 하고 있는 양식은 발전양식 또는 방형양식이다.

전형양식

전형양식이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석등 가운데 시원적(始源的) 양식을 계승한 기본형으로 화사석의 모양이 8각 평면 입면체이고 대좌부는 하대석의 복련과 상대석의 앙련의 연꽃잎이 각각 8장이며, 중대석은 8각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붕돌 또한 8각형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석등의 기본형인 전형양식은 그 제작시기에 따라 그 모양이 변화되는데 이에 따라 조형(祖型) · 전형(典型) · 이형(異型)의 세 양식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석등의 조상이 된다는 뜻에서 조형양식이라 한다. 조형양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 부재이다.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석등은 그 설치 장소로 위치로 보아 '법등명자등명(法燈明自燈明)' 이라는 상징성보다는 밤중에 경내를 밝히는 가로등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석등 조성에 기본 아이디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석등의 본보기가 된다는 뜻에서 전형양식이라 한다. 전형양식은 우리나라 석등의 주류로서 화사석과 간주석, 지붕돌이 8각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불국사 대웅전 앞 석등을 들 수 있다.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석등은 현존하는 석등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석등의 기본형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급 유물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석등은 8각형의 화사석과 하대석의 복련과 상대석의 앙련에는 8장의 연꽃으로 장식하고 앙련과 복련을 팔각기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본형으로 전형양식이라 한다. 석등의 기본형을 중시하되 간주석인 팔각기둥을 상징성과 조형미에 중점을 둔 형태로 변화시켜 장구를 세운 모양의 고복형, 쌍사자, 인물상 등으로 발전한 것을 이형(異型) 양식이라 한다.

1) 고복형계 석등

간주석을 팔정도를 상징하는 팔각기둥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장구를 세로로 세운 형태로 조성함으로써 안정감과 조형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장구는 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함포고복(含哺鼓腹)' 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함포고복이란 '배불리 먹고 즐겁게 지낸다' 는 뜻으로 요순시대의 평화로운 시대상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로서 장구의 형태를 취해 조형미를 살리는 동시에 평화로움과 풍요를 상징하였다.

고복형 계통의 대표적인 석등으로는 청량사 석등(보물 제253호), 개선사지 석등(보물 제111호), 화엄사 각황전 석등(국보 제12호), 실상사 석등(보물 제35호) 등이 있다.

2) 쌍사자계 석등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 라고 하는데,

고복형계 석등
❶ 국보 제12호 화엄사 각황전 석등
❷ 보물 제253호 청량사 석등

쌍사자계 석등
❸ 국보 제15호 법주사 쌍사자 석등
❹ 보물 제353호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부처의 설법이 모든 중생의 번뇌를 제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수보살이 사자상을 타고 있는데 사자는 바로 불교에서는 지혜를 상징하는 짐승이다.

이런 연유에서 간주석을 쌍사자 형상으로 만든 것은 부처님의 사자후 설법을 상징하는 동시에 지혜의 완성을 통해 성불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충북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을 보면, 두 마리 사자 중 한 마리는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입을 벌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입을 벌리는 것은 최초, 근원, 원인, 발생을 뜻하고, 입을 다문 것은 최후, 끝, 결과를 뜻한다.

쌍사자 계통의 대표적인 석등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국보 제15호), 합천 영암사지 석등(보물 제353호), 광주국립박물관에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제103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 등이 있다.

3) 인물상 석등

팔각 간주석 대신에 인물상으로 만든 석등은 대단히 희귀하다. 금강산 금강암지에 있는 공양 석등과 화엄사 효대 4사자 삼층석탑 앞에 있는 공양상 석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금강산 금강암지에 있는 석등은 스님상이 화사석을 머리에 이고 있어 공양석등이라 하는데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화엄사 효대에 있는 4사자 삼층석탑(국보 제35호)은 4마리의 사자가 탑신을 받치고 있고 그 가운데 인물상이 있는데 연기대사의 어머니라고 한다. 탑 앞에 있는 석등은 삼발이 모양의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에 화사석을 놓았으며, 지지대 안쪽에 인물상을 안치하였는데 연기대사라고 전한다. 탑과 석등은 효성이 지극한 연기대사가 어머니에게 차를 공양하는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과도기 석등 양식

과도기 석등은 고려시대에 출현한 것으로 8각형의 전형양식과 달리 6각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 교리로 볼 때 8각형이 팔정도에서 비롯되었다면, 6각형은 육바라밀의 상징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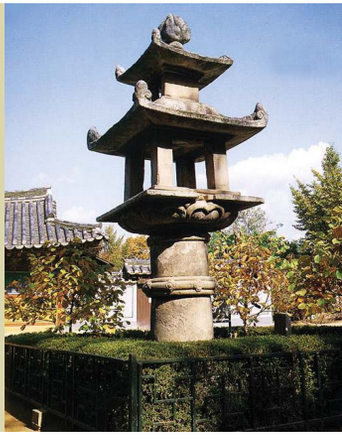
이 시기에 만들어진 6각형 석등은 전부재(全部材)가 6각형이며 특히 간주부가 6각 기둥과 고복형 두 종류로 구분되어진다. 6각 기둥 석등은 자혜사 6각 석등, 해인사 원당암 청석 6각 석등이 있으며, 고복형 석등계는 계성사지 석등, 정양사 석등 등에서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방형 양식

8각형-6각형-4각형은 팔정도, 육바라밀, 사성제와 같은 불교 교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된 원인은 제작의 편의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양식은 화사석이 4각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간주부는 4각형으로 되어있는 전형양식과 이형계통으로 고복형 4각 석등, 원주형 4각 석등, 8각 간주 석등, 쌍사자 석등, 단사자 석등, 귀부 4각 석등 등이 있다.

전형양식에는 충북 중원 미륵리 석등이며, 이형 고복형 양식은 현화사지 석등이며, 원주형 4각 석등은 관촉사 석등 등이 있다.



관촉사 석등

팔공산 제천단은 '천왕봉(天王峰)'

조명래 / 팔공산연구소 회장,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이 자료는 '팔공산연구소(다음카페 · cafe.daum.net/803love)'에서 문경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감수를 받아 2013년 11월 16일, 발표한 '팔공산 제천단의 위치와 봉명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현재 '비로봉'이라 불리는 팔공산 정상, 제천단의 원래 봉명은 문헌자료를 통해 예로부터 '천왕봉'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비로봉의 원래 위치는 문헌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천왕봉의 북쪽에 있는 공산성(군부대 주둔)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천왕봉'으로 지명변경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그리고 관련단체,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Ⅰ. 서론

팔공산(八公山)은 신라시대부터 공산(公山) · 중악(中岳) · 부악(父岳) 등으로 불렸던 영남의 명산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시대 중사오악(中祀五岳) 가운데 중악으로 국왕이 친제(親祭)하였다 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영남의 명산으로 이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중사오악 가운데 남악(南岳) 지리산(智異山)은 '천왕봉(天王峰)', 서악(西岳) 계룡산(鷄龍山)은 '천황봉(天皇峰)', 북악(北岳) 태백산(太伯山)은 영봉에 있는 제천단(祭天壇)을 '천왕단(天王壇)'으로 부르고 있음에 반하여, 중악(中岳) 팔공산은 제천단(祭天壇)의 위치에 대한 이론(異論)이 분분할 뿐 아니라 그 봉명 또한 사실과는 다르게 현재는 '비로봉(毘盧峰)'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으로 제왕봉(帝王峰) · 장군봉(將軍峰) · 상봉(上峰)이라고 불렸다는 증언도 있었으며, 천왕(天王)이 하강하고 상승하는 봉우리여서 '천왕봉'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팔공산연구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과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팔공산 제천단의 정확한 위치와 봉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Ⅱ. 팔공산 제천단의 위치는?

천제를 지냈던 사례

신라시대에 오악의 하나인 중악 팔공산에서 천제(天祭)를 지냈던 사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시대에 이규보가 지은 '공산대왕에 올리는 제문(祭公山大王文)',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도 김태일(金兌一)과 서명응(徐命膺), 하시찬(夏時贊) 등이 남긴 기록을 통해 가뭄이 심하면 팔공산과 인접한 고을에서 현감으로부터 관찰사에 이르기까지 기우제문을 지어 팔공산에서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천단의 위치

팔공산은 낙동정맥에서 분기한 팔공지맥(八公枝脈)의 주봉으로 북쪽의 화산(華山)에서 시루봉과 공산성(公山城)에서 가장 높은 'B봉'을 거쳐 중앙에 있는 'A봉(방송탑봉)'에 이른 뒤 동쪽으로 갈라진 줄기는 'C봉(彌陀峰)'을 거쳐 관봉(冠峰)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갈라진 줄기는 'D봉(三聖峰)'을 거쳐 물불봉과 가산(架山)으로 이어진다.

북쪽의 'B봉'과 동쪽의 'C봉', 서쪽의 'D봉'이 삼각형을 이루는 중심에 'A봉(방송탑봉)'이 위치하고 있으니 이규보의 공산대왕에게 말을 바치는 제문 가운데 '여러 산을 호위로 삼고(擁衆山而作衛)'라는 문구가 팔공산 정상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유방선(柳方善)의 '산행(山行)'에 나오는 '국흉(國胸)'은 오악의 하나인 중악을 상징하고 '중봉'은 팔공산 정상부에 위치한 'A봉(방송탑봉)'을 뜻하며, 정익동(鄭翊東)의 '유팔공산백칠십이운(遊八公山百七十二韻)'에 나오는 '중봉(衆峰)'은 이규보의 '공산대왕에게 말을 바치는 제문'에 실려 있는 '중산(衆山)'과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규보와 유방선, 그리고 정익동 등이 남긴 문헌자료를 살펴본 결과 팔공산 제천단의 위치는 팔공산 정상부의 'A봉(방송탑봉)'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Ⅲ. 비로봉의 위치는 어디인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화엄사상의 영향으로 명산에는 '비로자나불'이 상주한다고 여겨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비로자나불을 약칭하여 '비로봉'이라고 불렀는데 오대산 · 소백산 · 치악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예로부터 진불암(眞佛庵)에는 '뒷산에는 비로봉(毘盧峰), 좌측에는 문수봉(文殊峰), 우측에는 보현봉(普賢峰), 그리고 앞에는 관음봉(觀音峰)이 자리하고 있는 명당(明堂)'이란 말이 전해오고 있으며 이를 안내판에 새겨 놓았다.

'비로봉'이란 명칭은 극재(克齋) 신익황(申益愰 · 1672~1722)의 문집 극재집(克齋集)에 '팔공산 진불암을 제목으로 부치다. 암자의 주지 의눌이 나에게 기문(記文)을 지어달라고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다만 시를 써서 부치다.(寄題八公山眞佛庵庵主義訥求記余不許只書此寄題五音)'이란 제하의 시, '현설비로하(見說毘盧下)'라는 구절에서 처음 찾았으며, 그 뒤 1832년에 간행된 징월대사시집(澄月大師詩集)과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실려 있는 진불암중수기(眞佛庵重修記)에는 '팔공산 비로봉하진불암(八公山毘盧峯下眞佛菴)'이라 기록하였고, 낭산 이후(1870~1934)는 낭산집(朗山集)에서 '진불암(眞佛菴)' 제하에 '욕향비로고처거(欲向毗盧高處去)'라고 하였고, 또 '수도도중(修道途中)' 시의 주석에는 '비로봉은 수도폭포 위에 있으니 즉, 진불암 후산이다'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로봉과 관련한 문헌이나 구전 등이 있었는데 모두 진불암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1720년경 전후부터 1900년경 전후에 걸쳐 비로봉으로 불렸음을 입증하는 여러 문헌자료와 예로부터 진불암에 전해오는 구전, 지역주민들의 증언 등을 고찰해 볼 때 '비로봉'은 공산성에서 가장 높은 'B봉(1,176m)'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Ⅳ. 팔공산 제천단의 봉명은?

현재 '비로봉'이라고 불리고 있는 '방송탑봉'은 여러 문헌자료와 예로부터 진불암에 전해오는 구전, 지역주민들의 증언 등을 고찰해 본 결과 '비로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제천단이 위치했던 '방송탑봉'의 원래 봉명은 무엇이었을까?

일설에 '제왕봉(帝王峰)' 또는 '장군봉(將軍峰)'이라 불렸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천왕에게 천제를 지내던 오악 가운데 동악 토함산을 제외한 남악 지리산은 천왕봉, 서악 계룡산은 천황봉, 북악 태백산은 영봉에 있는 제천단을 천왕단으로 부르고 있는 것과 문경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신라왕경오악연구(新羅王京五岳研究)에서 '팔공산 천왕봉(天王峰 · 비로봉) 산정에 천왕당(天王堂)이 있어 천왕, 산왕(山王)에 제(祭)하던 제단이 지금도 남아있다. 고려시대는 팔공산 신을 공산대왕이라 불렀다'고 하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중악인 팔공산 제천단의 봉명 또한 '천왕봉'이나 '천황봉'과의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관련 문헌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천왕봉'과 관련된 자료를 태재(泰齋) 유방선(柳方善)의 태재집(泰齋集)과 낙애(洛涯) 정광천(鄭光天)의 낙애집(洛涯集), 그리고 동계(東溪) 조형도(趙亨道)의 동계집(東溪集), 겸재(謙齋) 정익동(鄭翊東)의 겸재집(謙齋集) 등에서 찾을 수 있었다.

태재 유방선(1388~1443)의 태재집에 실린 '등천왕봉(登天王峰)-영천공산봉명(永川公山峰名)'의 시는 동국여지승람에도 실려 있었으며, 또한 '중봉(中峰)'이 들어간 시제(詩題)와 구절이 4수나 되는 것을 볼 때 당시에 '천왕봉'을 달리 '중봉(中峰)'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낙애 정광천(1553~1594)은 낙애집의 '유팔공산십수(遊八公山十首)'에서 '염불암(念佛庵)에 도착하여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의 운(韻)을 차운(右到念佛庵次徐樂齋韻)'하여 읊은 시에 '천왕봉상백운심(天王峰上白雲深)'라고 하였으며, 동계 조형도(1567~1637)의 동계집에서 '천왕봉'이란 제하의 시를 남겼고, 또 '동화사(桐華寺)'라는 제하의 시에 '천왕봉하동화동(天王峰下桐華洞)'이라 하였고, 겸재 정익동(1735~1795)은 겸재집에 '유팔공산백칠십이운(遊八公山百七十二韻)'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천왕최수(天王最秀)'라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천왕봉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통해 조선조 이전부터 조선 중기,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말엽에도 '천왕봉'이라 불렸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한말과 일제시대에 본 산명을 망실한 이후에 '비로봉'이라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라 때 천왕에게 제사했던 중사오악 가운데 중악 팔공산 제천단의 봉명은 예로부터 '천왕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론

팔공산연구소에서 팔공산 제천단의 위치와 봉명에 관하여 찾아낸 관련 문헌자료의 조사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1) 비로봉과 진불암이 관련된 문헌자료와 예로부터 진불암에 전해오는 구전, 지역주민들의 증언 등을 고찰해 본 결과, '비로봉'은 공산성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B봉(1,176m)이었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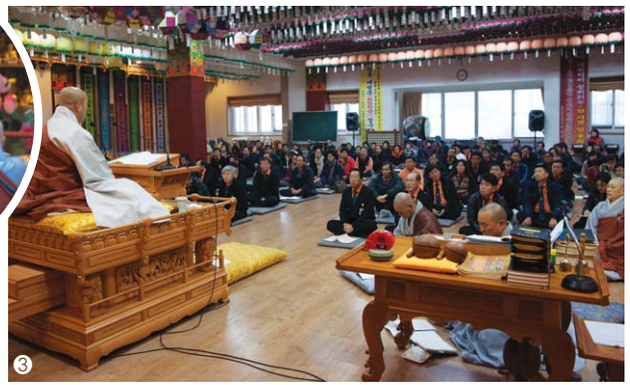
2) 고려시대 이규보와 유방선, 정익동 등이 남긴 문헌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팔공산 제천단은 산 정상부 북쪽의 공산성 최정상봉과 동쪽의 미타봉(彌陀峰 · 東峯), 서쪽의 삼성봉(三聖峰 · 西峰)이 삼각형을 이루는 중앙에 위치한 A방송탑봉(1,193m) 정상에 위치하였음을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3) '천왕봉'과 관련한 여러 문헌자료를 살펴 본 결과, 팔공산 제천단의 봉명은 남악 지리산의 천왕봉, 서악 계룡산의 천황봉, 북악 태백산의 천왕단과 같이 천왕이 하강하고 상승하는 봉우리이어서 예로부터 '천왕봉'이라 불렸음을 확인하였다.

제25회 백고좌법회 회향 해오름요양원 후원의 밤

2013년 9월 1일 입재한 제25회 백고좌법회 회향 및 보살계 수계법회가 12월 9일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되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5백여 불자들이 동참, 100일간의 법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불심을 다짐하는 보살계 및 법명을 수지하였습니다.

12월 13일 저녁에는 해오름요양원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후원가족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❶ 제25회 백고좌 회향법회에 5백여 불자들이 동참, 보살계 및 불명 수지법회를 봉행했다.
❷ 법문하시는 혜능스님
❸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께서 보살계의 참뜻에 대해 설법하고 있다.
❹ 법회 마지막에 연비의식을 행하는 주지 실상스님
❺ 불자들을 대표해 보살계첩을 수여받고 있다.
❻ 법회 사회자
❼ 축가를 부르는 우담바라 합창단
❽ 해오름요양원 후원가족의 밤 행사에 참석한 후원가족들
❾ 요양원 어르신들도 행사에 동참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❿ 주지스님께 후원금을 전달하는 운불련 회원들

법왕사 소식

계사년 동지기도 회향

12월 22일 계사년 동지를 앞두고 16일 입재하여 7일간 계속된 동지맞이 기도가 회향하였습니다. 이날 회향법회에는 5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기도를 올리고 팥죽을 먹고, 새해 달력도 배포하였습니다.
동지는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서 어둠이 극에 달하고 다시 밝음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날이어서 양의 기운이 바야흐로 시생(始生)하는 절기입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이 날을 아세(亞歲), 즉 작은 설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절에서는 이날 팥죽을 쑤어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는 풍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월 16일 제26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 제26회 백고좌법회가 2014년 1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백고좌법회 입재법문은 남원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께서 하십니다.
2014년도에는 1년에 3회의 백고좌법회를 봉행할 계획인데 제27회 백고좌법회는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28회 백고좌법회는 9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봉행합니다.
특히 이번 백고좌법회는 천일기도와 함께 입재하여 갑오년 한 해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여법하고 정성이 가득한 기도법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회 중간에도 불명 보살계 수지법회, 삼사순례법회, 방생법회를 비롯해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1월 15일 화엄성중 천일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새해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천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오는 2014년 1월 15일(음력 12월 15일) 입재하여 201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 회향하는 이번 천일기도는 기도를 통해 소원을 성취하는 대기도법회로 1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립니다.
또한 매월 보름날 오후 2시에는 화엄경 약찬게 49독 기도를 봉행하고, 천일법회 때마다 천주를 만들 30알의 염주를 드립니다. 천일기도비는 입재시 10만원, 매월 보름마다 30개월 동안 3만원씩입니다. 또한 천일기도 회향 때까지 천주를 완성하신 불자들께는 천일기도 회향 기념수계를 드립니다.

법왕사 달마서숙 원생모집

법왕사에서는 절제와 정직으로 덕성을 함양하는 동양의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품성을 고취시키고자 초, 중, 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용한자 1,200자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달마서숙을 개설합니다.

- **대상** : 초, 중, 고, 일반으로 수업과목은
- **초등부** : 부모은중경, 소학, 동문선습, 천자문
- **중고등부** : 명심보감, 효경, 목민심서, 명상과 호흡
- **일반부** : 반야심경, 음양오행학, 불가의 자연건강학입니다. 각 부 강좌당 30명 선착순 모집이며, 전 과정 무료입니다.

2014 JANUARY Vol. 236호

법왕사 소식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 막바지 진행중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천장공사가 착공 13년만인 11월 22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부산 조은불교에서 맡아서 하는데 19일 목재가 도착했고, 매일 5명이 투입되어 한 달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운불련 정기법회 12월 17~19일 사흘간 봉행

운불련 정기법회가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오후 2시 350여 회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복지관 3층 대법당에서 주지 실상스님의 법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법회는 1천3백여 회원들이 3개조로 나뉘어 사흘 동안 연속으로 열렸습니다.

12월 13일 해오름요양원 후원가족의 밤 봉행

지난 12월 13일 저녁 7시 복지관 지하 전시장에서 해오름요양원 후원가족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해오름요양원을 후원하는 5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여, 해오름요양원의 운영상황에 대해 주지스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요양원과 법왕사에서 마련한 한마당 잔치에 흥겹게 동참하였습니다.

■ 12월 9일부터 가창 제2해오름요양원 입택 및 공동생활과정 준비를 위한 시설보수공사가 진행중 입니다.

■ BBS 백고좌법회 방송일정

매주 수요일(밤 10시) 목요일(오후 5시)
금요일(오전 9시) 토요일(오전 7시)

- **촬영 법사스님 명단**

11월 1일(62일차) 도암스님(송광사 강주)
11월 2일(63일차) 변윤스님(토굴정진)
11월 3일(64일차) 영일스님
11월 4일(65일차) 덕문스님(통도사 율원장)
11월 8일(69일차) 원순스님(송광사 인월암)
11월 12일(73일차) 정인스님(창원 중앙승가대 교수)
11월 13일(74일차) 광옥스님(아미타선원장)
11월 16일(77일차) 영석스님(동국대 교수)
11월 17일(78일차) 덕진스님(울산 정토사)
11월 21일(82일차) 시명스님(부산 청은정사 주지)
11월 22일(83일차) 세준스님(동국대 교수)
11월 27일(88일차) 정엄스님(군포 정각사 주지)
11월 28일(89일차) 보각스님(김포 중앙승가대 교수)
12월 1일(92일차) 일귀스님(순천 송광사 강주)
12월 2일(93일차) 주경스님(서산 부석사 주지)
12월 6일(97일차) 일진스님(청도 운문사 주지)

축하드립니다

◈ 법왕사 신도이신 박기령 법우님, 2013년 김죽엽 무용단의 열두번째 창작 춤판 '장독대와 고무신' 공연을 성황리에 마치셨습니다.
◈ 법왕사 신도이신 조명희 경북대 교수(융복합시스템공학부 항공위성 시스템 전공)는 최근 임기 2년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 12월 1일 박정호 법우님의 저스트 사운드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정왕국 이재순 법우님의 장남 동식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천철성 이옥현의 장녀 은혜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이규식 정현자 법우님의 차녀 효주양의 결혼식이 1월 11일에 있습니다.(BBS서울라디오 아나운서)

새로 오신 법우님

김정희 오시연 오금옥

사보 도움 주신 분

아림사 선용스님 300부 윤견불심 500부
지우스님 300부 권순예 200부
박재관 300부

불사 도움 주신 분

불사 도움 주신 분
한경석 10만원(주춧돌)

해오름요양원 · 병원 한평불사 올리신 분
여택동 조창신 백경원 최태희 손점순
이세정 최옥남 조복래 전병학 권오성
신명균 손대천 조준승 정연수 전숙환
박동근 김상수 주정석 전숙환 이상열
정광춘 심보현 손정열 정현균 박대희
정정교 문국연 이길우 김임태 조복래
이희로 강상우 이재복 강상훈 이종랑
장재달 손점순 신격기 이세정 한상섭
구실상화 자윤스님

동지기도 설판 올리신 분
이정상 이원석 손정열 최옥분 신민호
오진환 박동근

수능기도 올리신 분
박은정 권도형 박범수

일년기도 설판 올리신 분
이정상

일년가족기도 올리신 분
류윤만 한병덕 이상태 박범수 이지송
이인석 박은정

제26회 백고좌 백일기도 올리신 분
이정상(설판) 정한필 안명흠

갑오년 1년 사업기도 올리신 분
(주)세광하이테크 세광금속 (주)보광직물
청수약수 삼계탕 경일신경외과 (주)G F코리아
지오씨엔아이 펀 비어킹 조병완치과의원

공양 올리신 분

떡공양 올리신 분(동지 7일 기도 시)
정효교 허상현 신민호 김상한 정혜월 2말
김정윤 3되 직접 우동진 3만원
정근수 3만원 이세정 직접
박대희 3만원 김우영 3만원
신채원 5되 직접 허성빈 5되 직접
유성종 18만원 전태일 5만원
류윤만 직접

생필품공양 올리신 분
박경훈 김기수 지장회
조준승 · 조명희 지하공양간 냉장고(245만원)
박종성 이불 양나영 휴지 한박스

대중공양 올리신 분
안준영 12만원 김명희 생강 1포대

공양미 올리신 분(20kg)
최옥분 1포 정광춘 1포 정혜원 2포
김민지 1포 김옥희 찹쌀 7만원
차운재 1포 김순태 찹쌀 1만4천원)
亡김운도 1포 亡최봉자 1포 정시영 1포
박임순 1포 심보현 1포 오금옥 찹쌀
김정희 찹쌀

동지불공시 공양미, 과일 올리신 분(20kg)
이수월심 1포 이정상 찹쌀 2포 김광영 1포
세광하이테크 과일공양 7박스(일체)
정돈 1포 최복례 찹쌀 2되 직접
박경창 3되 이승재 1포 오계식 영가 1포

동지 팥공양 올리신 분
김옥희 7만원 신장회 1말 관음회 1말
이정상 40kg 김광영 5만원 오진환 50만원
김순태 반말 직접 박경창 2만원
고연숙 5만원 서정연 한되 직접

과일공양 올리신 분
강유미 사과 한상자 직접 손병희 5만원
이바라밀 5만원

후원 하신 분

해오름요양원 후원의 밤 후원
이재영 10만원 권영숙 화분 2개, 불교도기
이상구 20만원

해오름요양원 후원
진재일 한희록 김정규 양봉훈 성승길
최상옥 엄세비 김무용 도평원 이재봉
강희정 김경환 권영철 김우영 이전희
장재혁 양봉률 이정희 여래사 향불회
정승혜 강유미 도화순 김미자 장성규
박치민 조정자 남기웅 황지영 허유미
최창숙 주성순 장효주 정선옥 한기웅
조정자 박재희 조창신 손말두 박길용
민주현 김영숙 마가스님 김영랑 최미숙
김혜준 김은주 송유남 정대영 장성용
서일권 정순옥 이태희 이도량 정운현

갑오년 법당(가족)등 올리신 분

1 박경영 2 김기석 3 곽영숙 4 김상수
5 권상태 6 류윤만 7 김기효 8 이원석
9 이승엽 10 전태일 11 함지훈 12 박경훈
13 박해진 14 서태희 15 이우영 16 김수식
17 장백련화 18 김일선 19 박종연 20 권무길
21 변정연 22 권혁일 23 변정연 24 정현표
25 김만기 26 정여근 27 장가란 28 박동근
29 이감로행 30 김대곤 31 박충근 32 정영순
33 황보일 34 남현우 35 장원식 36 손태익
37 권대규 38 권병기 39 최일근 40 김수희
41 이광순 42 김성묵 43 문종옥 44 김경환
45 김동섭 46 최성진 47 신영일 48 이상태
49 조분기 50 오병화 51 이순남 52 이재복
53 조영석 54 조춘권 55 이이근 56 김영국
57 조전근 58 김일곤 59 황광덕 60 진영덕
61 장세훈 62 김외한 63 허상현 64 신민호
65 김수만

단청등 올리신 분(갑오년 1년 사업등)

이정상(세광하이테크) 이욱진(세광금속)
황미선(대경정밀) 민병철(청송약수삼계탕)
박천득(정일수산) 장옥연(신암수산)
강상훈(동양식품) 강상우(동양식품)

원불 모신 분

이효주(관세음보살)

왕생극락하옵소서

◈ 조성찬 법우님의 엄부 조영기 영가님의 막재가 12월 1일에 있었습니다.
◈ 박철환 법우님의 엄부 박장춘 영가님의 초재가 12월 2일에 있었습니다.
◈ 이태수 법우님의 자모 전순이 영가님의 막재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 오병화 법우님의 엄부 오계식 영가님의 초재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 이재호 법우님의 엄부 이윤석 영가님의 초재가 12월 8일에 있었습니다.
◈ 조국진 법우님의 엄부 조철오 영가님의 이재가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이수연 영가님의 기제사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 오한연 영가님의 기제사가 12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이춘식 영가님의 기제사가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 제25회 백고좌법회 조상영가 막재가 12월 8일에 있었습니다.

해오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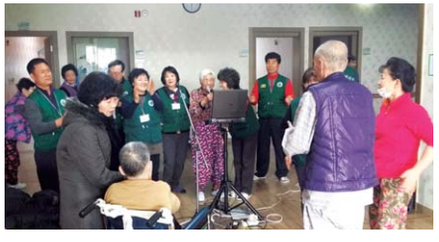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오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포터즈봉사단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에 어르신들이 써포터즈 봉사단과 함께 수성못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셨습니다.~

12월 13일 19시 제1회 해오름 후원의 밤 개최

본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보호자, 각 신행단체 신자분들과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녹색환경봉사단

어르신들을 위해 이 · 미용과 청소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까지! 녹색환경봉사단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2해오름요양원 입택 기도의식

제2해오름요양원 건립을 위한 부지(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115번지) 매입 후 원활한 복지사업 진행을 위한 입택 기도의식이 12월 9일에 있었습니다.

동지팥죽 새알빚기

따끈한 동지팥죽 맛있게 드셨나요? 저희 요양원에서도 새알 빚기에 어르신과 면회 오신 보호자까지 합세하셔서 동지에 관한 재밌는 추억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11월)

◉ 수입내역

이재봉 5천원	권숙자 1만원	정연이 5천원
김정규 5천원	현영희 1만원	이인순 5천원
최상옥 5천원	강영도 2만원	김봉숙 5천원
엄세비 1만원	이정훈 1만원	오난옥 5천원
최상옥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병희 1만원
한희록 1만원	김정자 5천원	김순란 3만원
권영희 1만원	김기수 2만원	신구자 5천원
박병준 1만원	구정대 2만원	조영석 1만원
황상옥 2만원	김순태 1만원	박학순 1만원
우혜경 1만원	김민주 1만원	윤순희 1만원
최은순 1만원	김형택 2만원	김미옥 2만원
김경호 1만원	문정자 1만원	김수라 1만원
백옥수 5천원	정경석 2만원	최분규 1만원
박연경 1만원	김영일 1만원	양나영 5천원
진봉희 1만원	정옥선 1만원	여축동 1만원
이길영 1만원	홍유식 5천원	신혜경 5천원
김주희 5천원	윤광숙 5천원	류윤만 1만원
신임선 5천원	고선영 1만원	황미선 2만원
김승환 5천원	박명숙 1만원	노수정 1만원
박정묵 1만원	최복례 1만원	권계화 1만원
이호동 5천원	권봉자 3만원	김정순 3만원
홍세림 1만원	김원형 3만원	최경순 1만원
오금옥 1만원	박순영 5천원	성외련 2만원
박대희 5천원	임익균 1만원	고연숙 1만원
이남희 1만원	곽순복 2만원	정활수 3만원
안상준 2만원	강선옥 1만원	임상덕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진성 1만원	김임태 5천원
조용수 1만원	심종순 5천원	정시영 1만원
김정희 1만원	한규매 5천원	권보형 2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강심규 5천원	홍세림 1만원
김유진 1만원	박창목 5천원	조규인 1만원
유명옥 1만원	이현우 1만원	사공관 1만원
정광춘 5만원	문정애 2만원	이성자 5천원
김기덕 2만원	노귀자 5천원	채옥연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정옥 1만원	배수현 2만원
이임숙 2만원	정무시 1만원	신돈식 1만원
현인숙 1만원	김정임 1만원	여택동 5천원
장우성 1만원	정금용 1만원	이종희 5천원
강숙영 1만원	권오성 1만원	안경순 1만원
박귀분 1만원	장인숙 5천원	이강복 1만원
이은희 5천원	권명원 1만원	우포정사 1만원

합계 1,360,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2,000원
– 부식재료구입	237,170원
– 업무용차량주유	30,000원
– 약품구입	21,000원
– 요양원 필요물품구입	194,500원

11월 총 사용내역 550,670원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box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떡 3팩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0개
한을식 어르신 보호자 : 요구르트 65개, 주스 1box
범혜순 어르신 보호자 : 김치 1통, 커피 1box
남분한 어르신 보호자 : 두유 1box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커피믹스 100개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개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순대 2팩
녹색환경봉사단(김영희) : 비타500 4box
김명희 : 생강 10kg
권영숙 : 빼빼로 30개, 요구르트 30개
김민지 : 소고기 5만원
장어와 미꾸라지 : 추어탕 40인분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하신 분

12월 1일 써포터즈 10명
12월 15일 녹색봉사단 15명
12월 24일 참사랑공연단

요양원 소식

- 제2 해오름요양원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115번지 소재 2014년 2월 17일 등기)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유세묘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 · 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제2해오름요양원 ·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 25분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제2해오름요양원과 병원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가창농원맞은편 (구)청용식당
전화. 766-2747

●● 동참하고 계신 분

김재경	1평	이대혜궁	1평	박소영	1평	사공순옥	1평
김다솔	1평	이성환	1평	우포정사	1평	김일만	2평
조창신	2평	백경원	1평	최태희	1평	손점순	1평
이세정	1/2평	최옥남	15평	조복래	1/2평	전병학	1평
권오성	1평	신명균	1평	손대천	1평	조준승	1평
정연수	1평	전숙환	1평	박재관	1평	박정흠	1평
문상옥	1평	손정열	1평				

동 참 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 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입춘 · 삼재소멸 기도 봉행

〈토끼, 양, 돼지〉

법왕사에서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입춘부터 대보름날까지 입춘 맞이 삼재소멸기도를 봉행합니다.

- 일 시 2월 4일(입춘) 입재 ~ 2월 14일(음 1월 15일) 회향
- 준비물 쌀 3되 3홉, 나이수만큼 동전, 속옷(묵은것)
- 동창금 1인 3만원

부처님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왕사에서는 오는 1월 8일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이하여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합니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께서 정각에 이르러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날입니다.

- 일 시 1월 8일(수) 저녁 7시 ~ 새벽 4시 예불시